

“제자 앞세운 비열한 행위로 토론회 방해한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 발언 관련 의혹을 밝혀라!”

1. 손님을 위협하고 제자를 앞세워 비열하게 방해한 이동현 총장

우리는 평택대 공공성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6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순회 토론회를 평택대에 유치했다.

우리는 11월 22일에 공식절차를 거쳐 토론회를 진행했으나, 이동현 총장은 손님들에게 토론회와 상관없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위협했다.

이동현 총장은 개최 당일에는 총장 직속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제자가 토론회를 시종일관 방해해도 내버려 두었다. 외부 참가자인 여성교수를 따라가며 위협하기까지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요구한 공식절차를 거친 토론회를 비열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 치를 떨며 통렬히 비판했다.

2. ‘윤석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행사 축하 뒤에 현 이사회 구성

2020년 ▷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평택대’ 언급
 ▷ 평택대 일부 교수, ‘국민의힘’ 지역의원 통해 전달 의혹
 ▷ 이동현 총장, 당시 평택대 주요 보직자

2022년 ▷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주재한 대회에서 ‘윤석열’의 축하
 ▷ 김삼환: 평택대 신학과 출신/ 평택대 이사장(2017)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축하 대독

◆ 이후 현 이사회체제로 구성 가속화

◆ 현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 명성교회 교인

◆ ‘윤석열’, ‘명성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

대통령실 보도자료(2024.3.31.)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2022.4.17.)부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 올해가 세 번째이며, 참석자는 윤석열, 김삼환, 한동훈 등이었다.

이동현 총장은 토론 방해사건에 대해 공식사과 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발언 관련 의혹과 그 이후에 전개된 현 이사회 구성과정에 대해 ‘경영비밀’이라며 숨기지 말고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성강화를 위해 개최한 토론회를 비열하게 방해한 이동현 총장을 규탄하며, 공공성강화를 염원하는 평택대의 구성원, 지역시민, 전국대학의 구성원과 함께 투명하여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

